

장용학 문학 연구의 새로운 성취와 과제

『장용학 소설의 삶문학적 특성 연구』
류희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양진오*

1. 장용학 문학 연구의 새 방향

우리들에게 『요한시집』과 『원형의 전설』의 작가로 알려진 장용학은 엄밀히 말하자면 연구가 만족스럽게 된 작가는 아니다. 이렇게 연구의 부족을 말할 때 장용학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의 내로라하는 작가들 중 연구가 만족스레 된 작가는 생각처럼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장용학은 더욱 그래 보인다. 장용학은 아직도 ‘원형의 전설’에 갇힌 작가처럼 보이기만 한다.

그런 점에서 류희식의 박사학위논문 『장용학 소설의 삶문학적 특성 연구』(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는 장용학 문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새롭게 한 성과로 보인다.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류희식이 장용학 문학 전반을 독해하면서 관련 자료를 오랜 시간 탐구, 확보하는 등 이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방면에서 내공을 쌓은 연구자라는 점이다. 명실상부 박사학위논문을 청구한 연구자라면 연구 대상이 될 작가와 작품의 전체를 장악해야 한다. 이렇게 장악하지 않으면 그 방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놓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점에서 류희식은 장용학 문학의 성실한 독자이자 연구자로 보인다. 류희식처럼 장용학 문학의 일부는 모르겠으나 전체를 독해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런데 류희식의 박사학위논문이 돋보이는 이유는 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장용학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는 데 있다. 전후작가, 신세대 작가, 실존주의 작가 등으로 명명되어온 장용학은 한국 현대문학의 장에서 대단히 낮은 상상력을 보인 작가에 속한다. 한 예를 들자면, 『원형의 전설』에 보이는 근친상간의 상상력은 지금도 그 문학적 의미를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 낯설다. 상상력도 상상력이거니와 그의 문학 도처에서 보이는 관념, 그로테스크, 불구, 기괴의 표상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장용학을 새로이 연구하고 읽어야 할 작가로 보이게 한다.

그간 장용학 문학은 알레고리, 미적 형식, 정신분석학 등의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외에도 장용학 문학은 문학사회학적 방법론, 소외 개념,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렇다면 류희식의 연구는 이 연구들과 어떻게 갈라지면서 새로운 성과를 지향하게 되었는가. 류희식은 본 논문에서 장용학 문학 연구의 가장 큰 맹점으로 그간의 연구들이 재현론(반영론)적 관점에 기대었다는 것을 든다.

다음으로 연구시각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작가가 도처에서 재현의 소설(자연주의 내지 리얼리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대부분은 재현론(반영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7쪽)

요컨대 장용학 문학은 자연주의는 차치하고라도 리얼리즘 등 재현론적으로 해석되기를 거부하는 텍스트임도 불구하고 그간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그의 문학에서 전후와 실존 등 재현의 양상을 해석해 왔다는 게 류희식의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을 토대로 류희식은 아래와 같은 기존 연구의 문제를 확정한다. 이를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둘째, 그의 후기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그로 인해 지금까지 연구에서 후기 소설들이 배제되어온 현상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의 후기 작품은 전기 작품들과는 달리 현실을 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비판적인 성격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문학 연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현실반영과 이를 통한 현실비판이라는 논리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흔히 전기 소설은 현실 비판적, 저항적 성격을 보여줌에도 관념적이며, 후기 소설은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관념성에 벗어나고는 있지만 저항과 비판이 약한 세태소설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현실반영과 현실재현이라는 항목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그의 문학은 언제나 모자라는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그의 소설 전체를 두고 보면 후기 소설의 기획이 현실 재현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평가’이자 ‘진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연속을 넘어가기 위한 전단계임을 알 수 있다.(7~8쪽)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장용학 문학 연구에 있어 전적으로 새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장용학 문학이 리얼리즘적 성격과 거리가 멀다는 건 연구자들 사이에서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렇기에 그의 문학을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서 해석해온 연구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류희식이 재현론적 관점을 장용학 문학 연구의 한계로 지목한 이유는 그간 연구자와 독자들이 간과한 장용학 문학의 새로움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아닌가 싶다. 그 새로움을 여는 개념이 바로 삶문학이다. 류희식

은 삶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장용학 문학을 읽고 해석하는 시도를 논문으로 구상하고 실천한다.

2. 삶문학으로서의 장용학 문학

류희식의 논문에서 삶문학은 근대성과 밀접하게 연동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과는 확실히 구분된 개념처럼 보인다. 이 개념을 빌려 류희식은 다른 문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장용학 문학만의 특유한 성격을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그 성격은 장용학 문학이 리얼리즘적이거나 모더니즘적으로 문학적 의미가 문학 외부의 실재와 연계되거나 내부의 어떤 관념과 연계되는 문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류희식의 논문에서 삶문학은 장용학 문학의 잠재적인 것의 실재성을 발견하고 여기에 문학적 의미를 투여하는 이론적 근거로 보인다.

들뢰즈에 기반하고 특히나 조정환의 예술철학 이론에서 인용한 삶문학 개념은 문학 텍스트를 잠재적인 것의 유동적인 생성으로 간주한다. 이 삶문학 개념에 토대하여 류희식은 소설을 “그 자체로 표현된 잠재성이며 관념론자가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 이상의 그리고 실재론자가 사물이라고 부른 것보다는 덜한 어떤 존재의 이미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설은 그 자체로 표현된 잠재성이다. 그러니까 류희식의 논문에서 소설은 표현된 사건, 인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제도와 장치에 예속되지 않는 인간 고유의 삶을 생성하는 잠재성의 텍스트이다. 그러니까 류희식은 문학과 소설을 구조의 개념으로 완성되고 표현된 텍스트가 아니라 인간들의 삶을 생성하는 잠재적인 것들의 운동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삶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장용학 문학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먼저 류희식이 주목하는 장용학 문학의 성격은 “장용학은 자신의 문학적 실험을 통하여 운명, 우상, 매커니즘 등과 같이 인간의 신체를 경화시키는 초월적인 것을 부정하고 인간에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장용학 문학은 “단순히 관념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것을 표현하는 실험”으로 류희식의 논문에서 이해된다. 요컨대 류희식의 논문에서 장용학 문학은 “우리 문학사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합했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양자택일적인 대립을 넘어 “지배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현실의 예속을 벗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해석된다.

문제는 류희식의 논문에서 키워드로 쓰이는 삶문학 개념이다. 삶문학 개념에서의 삶은 우리의 신체 위에 펼쳐지는 권력의 강제와 그것에 대한 저항과 넘어섬의 의미로 보이며 더 중요하게는 인간의 삶을 허용하지 않는 근대 제도와 장치들에 예속되지 않는 어떤 능력으로도 보인다. 삶문학 개념으로 해석한 장용학 문학은 국가, 권력, 신체 등 근대 개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어떤 에너지들의 생성되는 텍스트로 보인다. 그의 소설은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 근대 장치와 근대 제도들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탈주하는가를 보이는 실험이라는 게 류희식의 장용학 문학 해석의 본질이다. 이에 류희식은 장용학 문학에서 보이는 비정상적 인물들과 사건들은 인간을 예속하는 거시/미시적인 포획 장치들을 진단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의 지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주목할 해석으로 보인다.

이렇게 삶문학 개념으로 보자면 장용학 문학은 어떤 선형적 의미를 보유한 문학적 텍스트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문학에서 보이는 그로테스크, 비합리, 욕망 등은 문학성의 결여로 비판받을 게 아니라 예속되지 않는 새로운 삶을 향하는 생성과 열림의 계기가 된다. 이 지점에서 장용학 소설을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신체에 내재하는 잠재태를 현실화시키고 이를 통

해 새로운 현실을 열어젖힌 가장 적극적인 실천의 문학”으로 해석하는 류희식의 논문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장용학 문학이 새로이 해석될 여지와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한다.

그렇지만 삶문학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한 개념으로 보인다. 류희식은 이 개념으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양자택일적인 대립을 넘어 새로운 미학적 실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 사례가 바로 장용학 문학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삶문학 개념은 다분히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계된 개념으로 보이며 그가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과 분리된 새 개념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류희식이 그의 논문에서 장용학 문학을 생성과 탈주의 시도로 독해하기는 하지만 그 생성과 탈주의 구체적 내용 역시 다소 모호하다. 그의 장용학 문학 연구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논문에서 슬하게 서술한 생성과 탈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자 다시 그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존의 문학사는 장용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문학사가 지니고 있는 근대적인 관점의 한계이기도 하다. ‘역사’는 언제나 서술자의 현재적 관심에 따라서 사실들이 계열화되어 재구성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문학사는 바로 국가나 민족이라는 거대주체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구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문학에서 오직 근대성을 추구한 문학만 존재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거대주체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대상은 문학사에서 누락되거나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180)

기존의 문학사가 서술자의 현재적 관심에 의거해 사실들이 계열화되어 재구성된 까닭에 장용학 문학은 오독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와 민족 개념 등 거대 주체의 현실적인 관점으로도 장용학 문학은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류희식은 그의 논문에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일면 타당하지만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장용학 문학 연구가 부진한 이유가 근대적인 거대주체의 관심에서 벗어난 문학이어서 그렇다는 평가는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장용학 문학이 근대적인 거대주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문학인가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류희식은 삶문학 개념으로 장용학 문학의 새 해석의 지평을 열었을까? 나아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긴박된 한국 현대문학의 연구의 관행을 깨고 새 방향을 내는 어떤 성과를 이 논문에서 보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류희식이 앞으로 더 연구를 진행하며 입증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류희식은 이 논문에서 그 가능성을 열었다. 류희식의 연구를 통해 장용학 문학은 그 어떤 문학보다 인간을 둘러싼 안개(운명, 이상, 메커니즘 따위)를 헤치고 인간에 접근하여 삶을 해방시키려 했던 문학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류희식의 연구를 통해 장용학 문학은 ‘원형의 전설’에서 문학 연구의 장으로 외출하게 되었다. 바로 이게 문학 연구의 보람이다.